소프트웨어전공 2015003990 권기택

문비리 2주차 과제(이현식 선생님)

오늘 문화 비즈니스와 리더십 수업에서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이신 이현식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 행복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저성장, 고령화, 지구온난화 및 생태위기,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생명공학, 디지털 미디어, 인공지능 등이 등장하고 직업도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는 기술과 자연 환경의 변화, 지식의 존재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현재 그리고 현재와는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고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제도가 변화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의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문화의 주체는 시민이라 생각하여 그저 보여주고 보려는 전시, 관람 보다는 관람객과의 소통을 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에 있어 예술가가 아닌 기획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1세기 형 인문적 지성은 무엇인가 의문이 듭니다.  
첫번째, 열정과 창의력, 자신의 생각에 대한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기의 목적의식이 무엇인지 알아야하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하고 인문적 교양이 많아야 하고 또한 글쓰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두번째, 네트워크 즉 인간관계가 풍부해야됩니다. 이를 위해 품성이 좋아야하고 개인이 지닌 콘텐츠가 많아야 하고 인간 관계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하고 또한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세번째, 자기만의 콘텐츠(지식)가 있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단편적인 지식과 도구적 지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구조와 원리로서의 지식인 도구적 기능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맥락을 이해하고 창조할 수 있는 지성의 힘,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곧 콘텐츠를 갖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본말을 잃지 않고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1세기 형 인문적 지성인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좋은 소설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며 짥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고 항상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됩니다.